

# 현대 데님 패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과 미적 특성 연구 - 2001년 이후 여성 컬렉션을 중심으로 -

김 정 미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in Denim Fashion - Women's Collections Since 2001 -

Jeong-Mee Kim  
Prof., Dept. of Fashion Desig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013. 8. 29. 접수; 2013. 11. 12. 수정; 2013. 11. 15. 채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the aesthetic values of denim dresses from the 19th century until the 20<sup>th</sup> century and analyze those changes shown in Paris·Milan·London·New York collections from 2001 S/S to 2013/14 F/W.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 the mid-19<sup>th</sup> century, the denim pants were working suits. In the 1920's, they started to be recognized as ordinary clothing and they were supplied to women in World War II. In the 1950's, denim pants stood for youth and resistance, and they became popular among teenagers. In the 1960's, hippies who protested against the Vietnamese War would wear worn-out denim pants symbolizing peace and freedom. As they became more common in the 1970's, people all around the world wore the clothes. In the 1980's~90's, the waves of high class brand fashions brought in sensualism, extravagance, reactionary tendency, and so forth. Consequently, the aesthetic values of denim dresses have connotations of practicality, resistibility, ornamentation and femininity.

2) Practicality in recent collections is represented in classic fashion which features typical details and raw denim and modern fashion which is made with glossy denim and minimized details. Resistibility is represented in avant-garde fashion which features deformed or over-layered jackets and pants with damaged denim and vintage fashion which is made with wash-out and wild stone denim. Ornamentation is represented in ethnic fashion which is made with wash-out denim and ethnic prints and romantic fashion which features details such as ruffle, frill and shirring as well as lace and flowery decorations. Femininity is represented in sexy fashion which designs to expose or to focus in women's body and elegant fashion which is made with soft and glossy denim and hourglass silhouette.

**Key Words:** Denim fashion(데님 패션), Femininity(여성성), Ornamentation(장식성), Practicality(실용성), Resistibility(저항성)

## I. 서 론

서부 개척시대에 노동자들을 위해 탄생한 청

바지는 오늘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며 일상복으로 자리 잡았으며, 비즈니스 석상이나 심지어 국가원수간의 만남에도 등장한다(TBWA KOREA, 2008). 일례로 꾸준한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던 애플(Apple)의 스티브 잡스(Steve Jobs, 1955~2011)는 신제품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늘 청바지를 착용하였다.

이러한 청바지는 젊음을 상징하는 블루 컬러, 트윌 조직의 튼튼한 내구성, 워싱 등 다양한 가공법이 특징인데, 최근 들어 이러한 특징들이 여러 패션 아이템들에 활용되고 있다. 프리미엄 데님 브랜드 락앤리퍼블릭(Rock&Republic)은 데님으로 된 웨딩드레스를 선보였고, 디젤은 바닥까지 오는 긴 캅테일 드레스를 데님으로 만들어 뉴욕패션위크(New York Fashion Week)에 선보이기도 했다(“청바지 이야기”, 2007). 이처럼 데님 패션은 다양한 패션 아이템으로 창조되면서 하이패션과 스트리트패션의 경계를 허물고 무한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데님 패션과 관련된 연구는 소재가공 및 개발(김경애 외, 2003; 어미경 외, 2009; 서원, 2004; 이미식 외 2001; 정삼호, 2011), 체형 및 의복구성(박진영, 2006; 변지현, 2010; 어미경, 2007), 구매행동과 착용실태(김영란, 김병미, 2006; 유명진, 2007; 이정숙, 성수광, 2004; 박혜정 외, 2004; 김찬주, 노미경, 2007), 디자인 분석 및 개발에 관한 논문(김미영, 이충연, 2000; 김민아, 2003; 김민정, 2001; 김해순, 2002; 유정수, 2008; 이민경, 한명숙, 2002; 이소령, 2008; 이정원, 2007; 이진윤, 2004; 이호진, 2004; 조아라 외, 2011; 최진경, 2003)이 있다. 이 중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 있는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이민경, 한명숙(2002)은 최근 페미니즘이 현대패션에 영향을 주면서 데님 패션은 에로틱, 탈고정적 성, 해체성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미영, 이충연(2000)은 진(jean)은 1990년 초반에는 젊음과 자유로움, 중반에는 섹시함, 후반에는 개성과 자연스러움,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데님 패션은 과거 특정 집단을 상징하는 복식에서 벗어나 여러 사회적 현상과 패션 트렌드의 영향을 받아 점차 변화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9세

기에 발생하고 20세기에 성장하면서 축적된 데님 패션의 미적 특성과 그에 따른 조형적 특징이 최근 컬렉션을 통해서는 어떻게 변화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과거 미 서부 노동자들의 작업복이 여러 사회·문화적 변화를 거쳐 현대 여성들의 패션으로 창조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고, 이러한 데님 패션을 창조한 디자이너들의 독특한 방식을 통해 새로운 데님 패션디자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님 패션의 정의와 발생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19세기와 20세기 데님 패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과 미적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최근 컬렉션에 나타난 데님 패션의 조형적 특징과 미적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고자 하는데, 문헌 연구는 복식미학과 복식사에 관한 저서·논문을 주로 하고, 신문 및 패션 전문지 기사를 참고하며, 사례 연구는 패션 전문지 「갭(GAP)」에 나타난 데님 패션 사진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연구 범위는 2001 S/S 부터 2013/14 F/W까지의 파리(Paris)·밀란(Milan)·런던(London)·뉴욕(New York)의 여성 컬렉션이다. 데님 패션 사진을 추출하는데 있어서는 ‘데님(Denim)’, ‘진(Jean)’, ‘진즈(Jeans)’ 등의 용어가 언급된 사진과 데님 소재가 사용된 사진 1,728점을 그 대상으로 한다.

## II. 이론적 고찰

본 장에서는 데님 패션의 정의와 19~20세기 나타난 데님 패션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데님 패션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데님 패션의 시기는 주로 노동자들의 작업복으로 인식되었던 185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10대를 시작으로 전 세계인이 착용하여 일상복으로 대중화되었던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켈빈 클라인을 시작으로 고급화, 패션화가 이루어졌던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1. 데님 패션의 정의

데님(denim)은 16세기 프랑스 남부지방에서 생산된 ‘라 세르주 드 님(La serge de Nimes)’이라는 능직(twill weave)의 면직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데님은 이것의 미국식 표기이다. 이와 유사한 직물로는 진(jean)이 있는데, 진(jean)의 기원은 이탈리아 제노아의 직물인 ‘세르주 드 코튼(serge de cotton)’이라는 능직으로 된 면직물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중세 이후 영국에서 이것을 진이라 불렀다고 한다(이순홍, 홍순화, 2000).

19세기 초 데님과 진은 미국의 방적 산업과 시장 팽창으로 생산이 확대되자 직물의 질에 따라 명칭이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팬츠가 브라운 색상의 진으로 만들어졌는데, 19세기 후반에 리바이 스트라우스(Levi Strauss, 1829~1902)가 팬츠의 직물을 데님이라 명명하면서, 이 인디고 블루(indigo blue)의 데님으로 만든 팬츠가 브라운 색상의 진을 일컬게 되었다. 1925년에는 이 데님 팬츠를 진즈(jeans)라 부르게 되면서, 진은 직물에서 팬츠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되었다(Marsh & Trynka, 2005).

오늘날 데님은 선염사로 능직한 면직물을 말하는데, 가장 정통적인 데님은 10~14번수의 인디고 블루 색상의 경사와 12~16번수의 화이트 색상의 위사를 사용하여 2×1(2 up 1 down) 또는 3×1(3 up 1 down)의 능직으로 제직된 직물을 말한다(패션큰사전, 1999). 따라서 짙은 블루색이 보이고 안은 희게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데님은 거칠고 질긴 마무리 손질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두꺼운 데님은 주로 작업복에 사용된다. 그리고 소프트 데님(soft-finished denim)이 있는데, 이것은 데님이 점차 디자이너 진의 소재로 각광받으면서 패션 아이템에 잘 맞도록 개량한 것으로, 풀을 적게 먹이고 다양한 워싱 작업은 물론 부드럽게 끝손질과 마무리를 한 것이 특징이다(패션전문자료사전, 2001).

데님 패션은 일반적으로 데님을 사용한 패션을 의미하는데,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데님 패션은 데님으로 만들어진 의복을 전부 또는 하나 이상 착용하여 다른 품목들과 조합하여 입은 차림을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임을 알 수 있었다.

## 2. 데님 패션의 역사적 변천

### 1) 1850년대 ~ 1940년대

데님 패션의 시작은 1853년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만든 어깨끈이 달린 웨이스트 오버롤스(waist overalls)로 볼 수 있다. 이것은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 근교에서 금광이 발견되어 골드러쉬(Gold Rush)가 일면서, 거친 노동에 적합한 튼튼한 작업복의 요구로 등장하였다(이은영 외, 1999). 이것은 당시 가장 강한 소재인 트월 조직의 10온스 캔버스지(canvas)였는데, 무겁고 거칠었다. 이러한 단점은 1860년대 초 튼튼하면서도 가볍고 부드러운 9온스의 데님을 사용하면서 보완되었다. 1870년대 후반에는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인디고 블루로 염색한 데님으로 오버롤스를 만들었는데, 이 색상은 거친 노동으로 인해 굵히거나 오염이 생겨도 표시가 잘 나지 않아 작업복에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색이었다(TBWA KOREA, 2008).

1872년에는 제이콥 데이비스(Jacob Davis, 1834~1908)가 팬츠의 포켓 이음새 부분이 찢어지거나 늘어나지 않도록 고정하는 구리 리벳을 개발하였는데, 이 리벳을 박은 데님 팬츠는 주로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 나무를 채취하는 나무꾼, 농부, 카우보이, 철도공사 작업원 등의 노동자들이 착용하였다(이경희 외, 2006).

한편, 1889년에 설립된 리(Lee)는 1913년 노동자들을 위해 셔츠와 팬츠가 합쳐진 독특한 형태의 유니언 올(union-all)을 개발하였는데, <그림 1>은 1917년경 리의 유니언 올을 착용한 하터 캔디 컴퍼니(Harter Candy Company)의 여성 근로자들의 모습이다(Marsh & Trynka, 2005).

이처럼 미 서부에서 작업복으로 착용되던 데님 팬츠는 1929년 미국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으로 인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부의 목장 경영주들이 동부의 상류계층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목장을 개방하면서 일상복으로 전해지게 되었다(박길순, 2008).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카우보이를 영웅화한 할리우드(Hollywood) 영화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나타났는데, 리는 카우보이들이 부츠를 신기 편하도록 무릎 아래부터 폭을 넓게 한 데님 팬츠를 생산하였고, 이것은 ‘부츠 컷(boots cut)’이라 불리며 유행하였다. 1935년 「보그(Vogue)」는 여성들의 데님 팬츠 착용에 대한 특집 기사를 다루면서 함께

밑단을 접어 올린 데님 팬츠에 웨스턴 셔츠를 착용한 여성의 모습을 실었다(Marsh & Trynka, 2005). 이처럼 데님 의복은 미 동부의 상류계층이나 도시 여성들과 같은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패션으로 입혀지긴 했으나, 이것은 일부 소수의 모방에 따른 수용으로 진정한 의미의 패션화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착용인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이소령, 2006).

1940년대 전쟁 중에 많은 여성들은 남성들을 대체한 노동 산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데님 팬츠를 착용하게 되었다. 이렇듯 데님 팬츠는 1920년대부터 일상복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여 1930년대 중반부터 일부 여성들에게도 받아들여지긴 했으나, 1940년대까지는 여전히 노동복으로 여겨졌다(Diamond & Diamond, 2002).

## 2) 1950년대 ~ 1970년대

1950년대에 등장한 영화 ‘위험한 질주(The wild one, 1953)’, ‘이유 없는 반항(Rebel without a cause, 1955)’, ‘자이언트(Giant, 1956)’와 로큰롤(rock’n’roll) 음악은 십대들 사이에서 데님 복식을 더욱 유행하게 만들었는데, 많은 십대들이 데님 팬츠와 506 데님 재킷을 착용한 영화배우들과 뮤지션들의 모습을 모방했기 때문이다(Lehnert, 2000; Marsh & Trynka, 2005).

한편, 10대들이 수입을 갖게 되면서 소비자층으로 인식되자, 1953년 리는 십대 고객을 위한 광고를 시작하였고, 데님 팬츠는 수백 만 명의 십대들에게 입혀졌다(Marsh & Trynka, 2005). 1958년 미국의 한 신문은 “십대들 중 90% 이상이 잠잘 때와 교회 갈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데님 팬츠를 입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Tucker & Kingswell,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님 팬츠는 여전히 노동계급을 상기시키는 복식이었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데님 팬츠를 착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학교와 레스토랑에서는 데님 팬츠 착용을 금지하였다(Craik,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십대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데님 팬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특히 여성들에게도 데님 복식의 유행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Bond, 2000)(그림 2). 이처럼 1950년대의 데님 복식은 더 이상 노동자의 작업복이 아

닌 젊은이들을 위한 패션이 되었다.

1960년대 베이비부머(Baby Boomer)들은 TV를 통해 전쟁과 죽음 그리고 가난을 접하면서 정치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는데, 그들은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의문을 가지고 그 가치관의 바탕이 되고 있는 사회계급 자체를 문제시 하였다(TBWA KOREA, 2008). 이러한 사회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대는 과격한 학생 운동으로 나타났다으며,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부 데님 팬츠를 착용하였고, 이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히피(Hippie) 또한 데님 복식을 즐겨 착용하였는데, 그들은 물질주의의 미국 문화에 대한 거부 의의로 낡고 탈색된 데님 팬츠(faded jeans)와 데님 재킷을 선호하였다(TBWA KOREA, 2008). 주로 벨 보텀이나 플레어 팬츠에 슬로건·피스 사인(peace sign)·꽃 등을 페인팅 하거나 패치워크·스터드·프린지·비즈 등으로 장식하였다(Marsh & Trynka, 2005)(그림 3).

1970년대 데님 복식은 전 세계인들이 착용하게 되었는데,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체들은 데님 팬츠를 대량으로 생산하였고, 데님 팬츠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상점 또한 생겨났다(김기옥, 2004). 여성복과 아동복의 오버롤스나 쇼츠(shorts)에 데님이 사용되었으며 (Diamond & Diamond, 2002), 수영복과 같은 스포츠 웨어 뿐만 아니라 드레스와 모자·벨트·구두 등 모든 패션 아이템에 데님이 사용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것은 한 세기 동안 변화가 없었던 데님 팬츠의 변화인데, 70년대 초반에는 플레어 팬츠가 유행한데 반해 후반에는 테이퍼드(tapered) 팬츠와 스트레이트(straight) 팬츠가 크게 유행하였고, 배기(baggy) 팬츠 또한 나타났다(최진경, 2003).

그리고 이 시기 등장한 펑크(punk) 또한 데님 복식을 즐겨 착용하였는데, 그들은 찢어지거나 위싱이 들어간 데님 팬츠에 검정색 가죽 재킷, 외설적인 그림과 저속한 메시지가 들어간 티셔츠를 착용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창조했다(김기숙, 2002).

## 3) 1980년대 ~ 1990년대

1977년 캘빈 클라인(Calvin Klein)은 리바이스와 같은 앞선 브랜드들보다 50%이상 비싼 가격

으로 데님 팬츠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팬츠들은 첫 주에만 20만 벌 팔려 나갔다(Craik, 2001). 이 성공에는 TV와 잡지광고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는데, 특히, 1980년 브룩 쉴즈(Brooke Shields, 1965~)의 선정적인 TV광고는 큰 반응을 얻었다. 몇몇 지역에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님 팬츠는 전 세계적으로 4억 달러나 판매되었다(Marsh & Trynka, 2005).

한편 80년대 초기 유럽 디자이너들은 베이직 데님 팬츠에 실크(silk)와 캐시미어(cashmere), 린넨(linen)과 퍼(fur) 같은 럭셔리 소재를 사용하였고, 샤넬(Chanel)의 칼 라거펠드(Karl Lagerfeld)에서 아제딘 알라야(Azzedine Alaia)까지 그들의 컬렉션에 데님을 포함시켰다(Marsh & Trynka, 2005). 1985년 캐서린 햄넛(Katherine Hamnett, 1947~)은 팬츠를 찢어 장식 효과를 낸 디스트로이드(destroyed) 데님 팬츠를 발표하였다(박성실, 1994).

1990년대에는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으로 민속 풍과 복고풍이 유행하면서, 부분 탈색한 데님 팬츠와 다양한 색상의 데님 팬츠, 인디안 스타일의 데님 베스트가 인기를 끌었다(최진경, 2003). 그리고 유명 패션디자이너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데님 패션을 발표하였는데,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는 1991년 컬렉션에서 패서니스타들을 위한 캐주얼하면서 럭셔리한 데님 수트를 선보였으며, 톰 포트(Tom Ford)는 1999 S/S 구찌(Gucci)를 위한 컬렉션에서 밑단에 깃털로 장식을 한 포카혼타스 스타일(pocahontas-style)의 데님 패션을 발표하였으며,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는 1999년 오트 쿠튀르(haute couture) 컬렉션에서 데님을 가늘게 잘라 장식한 스트랩리스 볼가운(strapless ballgown)(그림 4)을 선보였다(Marsh & Trynka, 2005).

앞에서 데님 패션을 사적으로 고찰한 결과, 데님 패션은 19세기 중반 금광채굴을 위한 미서부 노동자들이 착용했던 작업복을 시작으로, 1920~30년대에는 일부 여성들에게 일상복으로 받아들여지긴 했으나, 40년대 전쟁에 참가한 남성들을 대체하여 노동 산업에 참여한 여성들이 착용하기까지 여전히 노동자들의 작업복이었는데, 이러한 복식에는 강한 내구성을 지닌 실용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데님 패션은 50년대에는 10대들의 패션이 되었으며, 70년대에 와서는 전 세계인들이 착용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대중화되었다. 또한 이 시기 등장한 히피와 펑크 같은 하위문화 집단들까지 착용하여 기성세대, 체제와는 구분 짓는 그들만의 스타일을 구축하였는데, 이러한 복식에는 실용성과 더불어 저항성도 나타났다. 특히 히피들의 복식에서는 장식성 또한 나타났는데, 이들은 물질주의에 대한 거부로 온갖 수공예적인 기법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80~90년대에 데님 패션은 켈빈 클라인을 시작으로 고급화, 패션화가 이루어지 시작하여, 미국과 유럽의 유명한 패션디자이너들은 그들의 컬렉션에 데님을 포함시켜 매 시즌 그들만의 방식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였는데, 이러한 복식에는 실용성, 저항성, 장식성, 여성성 등과 같은 미적 특성이 나타났다.

### III. 현대 데님 패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과 미적 특성

본 장에서는 데님 패션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추출한 미적 특성인 실용성, 저항성, 장식성, 여



<그림 1> 1917년경 여성 노동자들  
(출처: DENIM(2005), p. 38)



<그림 2> 1950년대 젊은 여성들  
(출처: 20세기 패션(2000), p.203)



<그림 3> 1972년 히피들  
(출처: DENIM(2005), p.103)



<그림 4> 1999년 Gaultier  
(출처: DENIM(2005), p.108)

성성이 최근 2001년부터 2014년까지 4대 컬렉션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최근 컬렉션에 나타난 데님 패션 현황

최근 컬렉션에 나타난 데님 패션의 미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패션 전문지 「갭(GAP)」 2001 S/S부터 2013/14 F/W까지 파리·밀란·런던·뉴욕 컬렉션에서 데님 패션 사진 총 1,728점을 수집하였다. <표 1>에서와 같이 이것을 시즌별로 나누어 보면 S/S가 948점, F/W가 780점으로, 데님 패션은 S/S와 F/W 모두 많이 나타났지만, S/S에 조금 더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별로 세분화하면, S/S에서는 밀란 362점, 파리 259점, 뉴욕 210점, 런던 117점이며, F/W에서는 밀란 292점, 뉴욕 189점, 파리 188점, 런던 111점이다.

<표 1> 도시와 시즌별로 분류한 데님 패션의 수

시즌	도시	파리 (Paris)	밀란 (Milan)	런던 (London)	뉴욕(New York)	합계
S/S	2001	16	16	3	10	45
	02	37	33	4	31	105
	03	7	12	7	12	38
	04	32	38	7	14	91
	05	30	62	18	17	127
	06	12	68	13	21	114
	07	5	7	4	15	31
	08	5	21	8	6	40
	09	45	5	21	32	103
	10	18	48	10	17	93
	11	18	26	6	7	57
	12	4	18	9	5	36
	13	30	8	7	23	68
	소계	259	362	117	210	948
F/W	2001/02	18	36	20	14	88
	02/03	29	32	15	19	95
	03/04	12	13	3	14	42
	04/05	41	54	27	42	164
	05/06	26	59	18	23	126
	06/07	13	22	3	8	46
	07/08	12	6	1	9	28
	08/09	11	12	3	23	49
	09/10	2	24	1	24	51
	10/11	6	3	8	4	21
	11/12	4	17	3	2	26
	12/13	0	11	5	0	16
	13/14	14	3	4	7	28
	소계	188	292	111	189	780
합계	447	654	228	399	1,728	

이것으로 데님 패션은 밀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파리와 뉴욕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런던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2. 데님 패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과 미적 특성

1) 실용성

과거 데님복식에 있어서 실용성은 19세기 중반 금광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1940년대에는 전쟁터로 나간 남성들을 대신하여 노동에 참가한 여성들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착용한 작업복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1920년대에 처음 일상복으로 입기 시작하면서 50년대에는 10대들이, 70년대 이후에는 중년과 여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입은 일상복에서 나타났다. 그 특징은 대체적으로 데님 소재에서 오는 강한 내구성과 기능적이면서도 단순한 형태에 있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신소재의 사용과 디테일에 있어서 약간의 변형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디자인의 특성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컬렉션에서 이러한 특성은 발렌시아가(Balenciaga),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데렉 램(Derek Lam), 엘리 키시모토(Eley Kishimoto), 폴 스미스(Paul Smith), 랠프 로렌(Ralph Lauren) 등이 디자인한 데님 패션에서 주로 나타났다. <그림 5>는 데렉 램이 11 S/S 컬렉션에서 발표한 팬츠 수트이다. 이 수트는 원 버튼의 싱글브레스트(single-breast) 재킷과 통이 넓은 팬츠로 스트레이트 실루엣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인디고 블루의 데님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네이비 색상의 터틀 넥(turtle neck)을 매치하여 데님 소재를 부각시켜 실용적인 복식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재킷에는 두 개의 패치 포켓을 더하여 실용성을 더욱 강조하는데, 이러한 데님 패션은 보수적이면서도 단정한 느낌을 주는 클래식 패션(Classic Fashion)이다.

한편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장식성이 배제된 간결함을 추구하는 현대패션의 모더니즘적 경향은 데님 패션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디자인에서 실용성이 잘 드러난다. 최근 컬렉션에서 이러한 특성은 발렌시아가, 보르보네제

(Borbonese), 셀린느(Celine), 끌로에(Chloe), 에르메스(Hermes), 존 리치몬드(John Richmond), 스텔라 맥카트니(Stella McCartney) 등이 디자인한 데님 패션에서 주로 나타났다. <그림 6>은 스텔라 맥카트니가 11 S/S 컬렉션에서 발표한 스커트 수트로, 이 수트는 부드러운 어깨 라인의 싱글 브레스트 재킷과 무릎길이의 스커트로 구성되어 스트레이트 실루엣을 이루고 있다. 재킷은 칼라를 없애고, 소매길이를 짧게 하였으며, 스커트도 디테일과 구성선을 최소화하였다. 여기에 인디고 블루의 워싱을 하지 않은 데님을 상하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데님의 소재적 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재킷에는 반팔 길이의 래글런 소매, 스커트에는 옆트임을 줌으로써 활동에 편리하게 하여 실용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러한 데님 패션은 도회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표현하는 모던 패션(Modern Fashion)이다.

## 2) 저항성

데님복식에 있어서 저항성은 1950년대 10대들의 일상복을 시작으로, 60~70년대에는 히피와 펑크들이 기성세대의 사고와 체제를 부정하는 그들만의 스타일을 창조하면서 나타났다. 90년대 이후에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고급 패션과 개성을 추구하는 스트리트 패션에서도 나타났다. 그 특징은 주로 기존의 전통이나 격식에서 벗어난 패션 스타일로, 대중성을 무시한 실험적 요소가 강한 디자인에 있다. 최근 컬렉션에서 이러한 특성은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크리스토퍼 케인(Christopher Kane),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장 폴 고티에,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 빅터 앤 롤프(Victor and Rolf) 등이 디자인한 데님 패션에서 주로 나타났다. <그림 7>은 장 폴 고티에가 10 S/S 컬렉션에서 발표한 것으로, 몸에 밀착되는 블라우스와 팬츠로 구성되어 피티드 실루엣을 이루고 있다. 팬츠는 인디고 블루의 워싱 기법으로 가공된 데님을 사용하고, 가로 방향으로 일정하게 자른 후, X형으로 교차시켰으며, 옆선은 무릎부터 밑단까지 트임을 주어 전통적인 데님 팬츠를 해체하였다. 그리고 커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가장자리의 울을 풀어서 인디고 블루와 화이트의 대비효과를 주어 형태를 더욱 모호하게

하였다. 블라우스에는 인디고 블루에 화이트와 네이비 색상의 추상적인 무늬가 있는 신축성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몸관을 자르고 엮어 원래 블라우스의 형태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즉 형태의 해체를 통해 전통적인 옷의 형태를 부정함으로써 저항성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데님 패션은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감각을 표출하는 아방가르드 패션(Avant-garde Fashion)이다.

한편 복고주의의 영향으로 현대패션에서는 빈티지 패션(Vintage Fashion)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향은 특히 데님 패션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빈티지 패션은 새 옷 같은 느낌이 아닌 낡은 듯한 느낌이 드는 패션으로 유행을 따르지 않고 착용자의 개성에 따라 오래된 듯하지만 고풍스럽게 입는 스타일을 말하는 것으로(패션큰사전, 1999), 최첨단 패션을 만들어 유행을 이끄는 대중적 패션과 새 옷의 느낌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빈티지 패션의 특징은 비구조적, 비대칭적 형태로 자연스럽게 정형화되지 않은 이미지를 연출하며 특별한 착장 형식 없이 자유롭게 겹쳐 입는 데 있다(임지완, 박민여, 2007). 최근 컬렉션에서 이러한 특성은 알렉산더 왕(Alexander Wang), 디스퀘어드2(Dsquared2),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겐조(Kenzo), 랄프로렌, 톱샵 유니크(Topshop Unique) 등이 디자인한 데님 패션에서 나타났다. <그림 8>은 겐조가 10 S/S 컬렉션에서 발표한 팬츠 수트로, 이 수트는 더블브레스트 재킷과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팬츠로 구성되어 스트레이트 실루엣을 이루고 있다. 재킷은 테일러드 형으로 둥근 어깨 라인과 영덩이를 덮는 길이며, 색상은 화이트에 가까운 아이스 블루를 주로 하여 스카이 블루·인디고 블루·그레이 등으로 색이 바랜 느낌을 주었으며, 와일드 스톤 워싱 가공을 통해 데님 특유의 거칠고 낡은 분위기를 강하게 표현하였다. 팬츠는 헐렁한 실루엣에 밑단을 롤업한 형태로, 재킷과 같은 색상의 데님을 사용하여 낡고 오래된 느낌을 강조하였다. 즉, 낡고 색이 바랜 듯한 데님과 장식을 통해 새 옷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정형화된 분위기와 느낌을 부정하면서 저항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데님 패션은 낡고 오래된 느낌을 주는 빈티지 패션이다.



### 3) 장식성

데님복식에 있어서 장식성은 1960년대 히피들이 물질주의와 미국문화에 대한 거부로 온갖 수공예적인 기법으로 장식한 복식스타일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히피 록을 포함한 에스닉 패션(Ethnic Fashion)에서 나타나는데, 그 특징은 주로 민속 의상에서 영감을 받은 형태, 색상, 소재, 무늬, 디테일 장식에 있다. 최근 컬렉션에서 이러한 특성은 안나 수이(Anna Sui),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 장 폴 고티에, 존 갈리아노, 준야 와타나베, 저스트 카발리(Just Cavalli), 이자벨 마랑(Isabel Marant) 등이 디자인한 데님 패션에서 나타났다. <그림 9>는 저스트 카발리가 11 S/S 컬렉션에서 발표한 팬츠 수트로, 스트레이트 실루엣을 이루고 있다. 재킷은 어깨가 넓고 칼라가 없으며 넉넉한 품에 길이가 짧은 형태인데, 워싱 데님에 레드·오렌지·옐로우·브라운·카키 등의 직물을 사용하여 패치워크 기법으로 장식하였다. 여기에 여러 색상으로 된 화려한 벨트와 백을 매치하여 오리엔탈 분위기의 에스닉 패션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팬츠는 일자형인데, 워싱 데님에 레드·오렌지·브라운 등의 색상으로 기하학적인 무늬를 더하여 장식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데님 패션은 이국적이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에스닉 패션이다.

또한 장식성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로맨틱 패션(Romantic Fashion)의 주된 특성이기도 한데, 로맨틱 패션은 프릴·러플·셔링 등의 디테일과 레이스·리본·자수·아플리케 등으로 장식한 여성적인 스타일을 말한다(박길순, 2008). 최근 컬렉션에서 이러한 특성은 벳시 존슨(Betsey Johnson), 디앤지(D&G), 돌체 앤 가바나, 저스트 카발리, 루이 뷔통(Louis Vuitton), 마크 제이콥스 등이 디자인한 데님 패션에서 나타났다. <그림 10>은 디앤지가 05 S/S 컬렉션에서 발표한 것으로, 베스트와 스커트로 구성되어 자연스러운 아우어글래스(hourglass) 실루엣을 이루고 있다. 베스트는 홀터 넥(halter neck)의 짧은 길이로 허리 라인을 강조한 형태이며, 스커트는 무릎까지 몸에 밀착되다가 아래로 갈수록 플레어어진 형태로, 중앙에 깊은 슬릿이 있다. 여기에는 밝은 스카이 블루의 데님을 상하 동일하게 사용하

고, 열대과일과 식물, 꽃무늬를 프린트하여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또한 베스트의 앞여밈과 헤어밴드에 핑크·레드·오렌지·퍼플 등의 꽃으로 장식하고, 대담한 패턴의 핸드백, 장식이 있는 구두를 매치하여 장식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러한 데님 패션은 낭만적이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어 장식성과 더불어 귀여운 여성성을 표현하는 로맨틱 패션이다.

### 4) 여성성

과거 데님복식에 있어서 여성성은 1980년 당시 15세의 브룩 쉴즈를 모델로 한 켈빈 클라인의 선정적인 광고를 시작으로, 이후 스트레치 데님이 생산되어 몸에 밀착되는 패션이 등장하면서 이전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관능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몸을 강조하는 패션의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데님 패션에서도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경향은 더욱 뚜렷해졌다. 최근 컬렉션에서 이러한 특성은 발망(Balmain),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돌체 앤 가바나, 프랭키 모렐로(Frankie Morello), 하우스 오브 홀랜드(House of Holland), 장 폴 고티에, 스포츠막스(Sportmax) 등이 디자인한 데님 패션에서 나타났다. <그림 11>은 프랭키 모렐로가 11 S/S 컬렉션에서 발표한 원피스 드레스로, 마치 청바지를 거꾸로 입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 드레스는 가는 허리를 강조하고 몸에 밀착되는 스타일로, 가공을 통해 데님 특유의 거친 성질을 없애고 파스텔 색상의 매끄럽고 유연한 소재로 바꾸어 여성의 신체적 곡선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더욱이 네크라인을 넓고 깊게 파서 가슴을 포함 상체의 상당부분을 드러내고, 스커트 길이를 짧게 하여 허벅지에서 종아리까지 이르는 다리 전부를 노출시켰다. 또한, 청바지의 앞지퍼처럼 보이는 긴 슬릿을 더하여 노출을 극대화시켜 여성성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이러한 데님 패션은 도발적이고 관능적인 여성성을 표출하는 섹시 패션(Sexy Fashion)이다.

또한 여성성은 성숙한 여성의 아름다움과 우아한 품위를 추구하는 고급 패션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패션의 특징은 주로 길고 슬림한 실루엣의 부드럽고 정돈된 형태이며, 최소한의 디테일로 절제된 느낌을 주는데 있다(박길순 외,



2009). 최근 컬렉션에서 이러한 특성은 클로에, 크리스찬 디올, 데렉 램, 리바이스, 모스키노 (Moschino), 스텔라 맥카트니 등이 디자인한 데님 패션에서 많이 나타났다. <그림 12>는 크리스찬 디올이 05 S/S 컬렉션에서 발표한 스커트 수트이다. 이 수트는 쓰리버튼의 싱글브레스트 재킷과 무릎을 덮는 길이의 스커트로 구성되어 자연스러운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을 이루고 있다. 재킷은 둥근 어깨 라인, 소매는 짧고, 네크 라인이 넓게 파여 목, 쇄골, 손목 등 가려진 여성의 몸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스카이 블루에 화이트 색상의 꽃무늬가 프린팅 된 데님을 상하 동일하게 사용하고, 플랩 포켓을 제외한 다른 디테일을 최대한 절제함으로써 고급스럽고 품위있는 패션을 완성하였다. 여기에 같은 소재의 얇은 벨트를 사용하여 가는 허리를 부각시켰다. 이러한 데님 패션은 우아하고 성숙한 여성성을 표현하는 엘레강스 패션(Elegance Fashion)이다.

결과적으로 최근 컬렉션에 나타난 데님 패션의 미적 특성을 정리하면, 실용성은 단순한 형태, 스트레이트 실루엣의 데님 팬츠 혹은 스커트 수트에 고전적이면서도 기능적인 디테일이 특징인

클래식 패션과 디테일 장식이나 워싱 가공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절제된 세련미를 추구하는 모던 패션에서 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저항성은 형태를 해체하거나 데님을 과격적으로 찢거나 장식하는 등 실험적인 요소가 특징인 아방가르드 패션과 낡고 색이 바랜 듯한 데님을 사용한 아이템에 다양한 장식 기법을 사용하여 개성있는 이미지를 추구하는 빈티지 패션에서 주로 나타났다. 장식성은 데님 패션에 민속 의상에서 영감을 받은 형태, 색상, 소재, 무늬, 디테일 장식이 특징인 에스닉 패션과 주로 데님을 사용한 아이템에 파스텔 계열의 색상, 프릴·리플·셔링과 같은 곡선적인 디테일, 레이스·리본·꽃 등 로맨틱한 요소가 더해져 낭만적이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는 로맨틱 패션에서 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성성은 몸에 밀착되거나 신체를 노출시켜 관능적인 여성성을 표현하는 섹시 패션과 자연스러운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의 데님 패션으로 가는 허리와 다리 등을 부각시켜 우아하고 성숙한 여성성을 강조하는 엘레강스 패션에서 주로 나타났다. <표 2>는 최근 컬렉션에 나타난 데님 패션의 미적 가치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 5> 실용성  
Derek Lam 11 S/S  
(출처: Gap Collection)



<그림 6> 실용성  
Stella McCartney 11 S/S  
(출처: Gap Collection)



<그림 7> 저항성  
Jean Paul Gaultier 10 S/S  
(출처: Gap Collection)



<그림 8> 저항성  
Kenzo 10 S/S  
(출처: Gap Collection)



<그림 9> 장식성  
Just Cavalli 11 S/S.  
(출처: Gap Collection)



<그림 10> 장식성  
D&G 05 S/S  
(출처: Gap Collection)



<그림 11> 여성성  
Frankie Morello 11 S/S  
(출처: Gap Collection)



<그림 12> 여성성  
Christian Dior 05 S/S  
(출처: Gap Collection)

<표 2> 최근 컬렉션에 나타난 데님 패션의 조형적 특징과 미적 특성

특징	실용성		저항성		장식성		여성성		
	클래식	모던	아방가르드	빈티지	에스닉	로맨틱	섹시	엘레강스	
형식	형태 · 실루엣	·간결한 직선 ·단순한 형태 ·스트레이트 실루엣	·간결한 직선 ·단순한 형태 ·스트레이트 실루엣	·모호한 형태 ·불확정적 실루엣	·비구조적인 선 ·비대칭적 형태 ·스트레이트 실루엣	·기하학적 형태 ·스트레이트 실루엣	·부드러운 곡선 ·자연스러운 아우어 클래스 실루엣	·간결한 직선 ·짧은 형태 ·피티드 실루엣	·부드러운 곡선 ·하이웨이스트 형태 ·자연스러운 아우어 클래스 실루엣
	색상	·Black ·Gray Blue ·Indigo Blue	·Black ·Dark gray ·Gray Blue	·Black ·Dark Indigo Blue ·Ice Blue ·Sky Blue	·Ice Blue ·Indigo Blue ·Sky Blue	·Indigo Blue ·Navy ·Orange ·Red	·Light Indigo blue ·Sky Blue ·Pink ·Yellow	·Black ·Gray ·Indigo Blue ·Sky Blue	·Sky Blue ·Gray Blue
	소재	·생지 데님 ·워싱 데님	·광택있는 데님	·워싱 데님 ·탈색된 데님	·워싱 데님 ·와일드 스톤 데님	·워싱 데님 ·화려한 직물	·그라데이션 데님 ·밝게 탈색된 데님	·매끄럽고 유연한 데님 ·탈색된 데님	·꽃 프린트 데님 ·광택있는 데님
	디테일 · 트리밍	·앞여밈, 밑단 ·어깨 달개		·올 풀기 ·찢기 ·자르기 ·프린팅	·올 풀기 ·찢기 ·페인팅 ·프린팅	·꽃 장식 ·올 풀기 ·프린팅 ·패치워크	·러플, 프릴 ·레이스 ·꽃 장식 ·페인팅	·레이스 ·스터드 ·찢기	·셔링 ·프린팅
	아이템	·재킷 ·팬츠 ·팬츠 수트 ·스커트 수트	·재킷 ·팬츠 ·팬츠 수트 ·스커트 수트	·블라우스 ·재킷 ·팬츠 ·스커트	·팬츠 ·오버플스 수트	·팬츠 수트 ·스커트 수트	·베스트 ·스커트 ·원피스 ·팬츠	·팬츠 ·원피스 ·바디 수트	·스커트 ·원피스 ·스커트 수트
의미	·보수적 ·단정함	·도회적 ·세련됨	·전위적 ·실험적	·고풍스러움 ·개성적	·이국적 ·신비스러움	·낭만적 ·사랑스러움 ·귀여움	·도발적 ·관능적	·우아함 ·성숙함	
대표 디자이너	·Balenciaga ·Bottega Veneta ·Derek Lam ·Eley Kishimoto ·Paul Smith ·Ralph Lauren	·Balenciaga ·Borbonese ·Celine ·Chloe ·Hermes ·John Richmond	·Alexander McQueen ·Christopher Kane ·Issey Miyake ·Jean Paul Gaultier ·Junya Watanabe ·Victor and Rolf	·Alexander Wang ·Dsquared2 ·John Galiano ·Kenzo ·Ralph Lauren ·Topshop Unique	·Anna Sui ·Dolce & Gabbana ·Jean Paul Gaultier ·John Galiano ·Junya Watanabe ·Isabel Marant	·Betsey Johnson ·D&G ·Dolce&Gabbana ·Just Cavalli ·Louis Vuitton ·Marc Jacobs	·Balmain ·Christian Dior ·Dolce & Gabbana ·House of Holland ·Jean Paul Gaultier ·Sportmax	·Chloe ·Christian Dior ·Derek Lam ·Levi's ·Moschino ·Stella McCartney	
대표 디자인									

##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데님 패션을 사적으로 고찰하여 조형적 특징과 미적 특성을 파악한 후, 이러한 미적 특성들이 최근 컬렉션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데님 패션은 19세기 중반 금광채굴을 위한 미서부 노동자들이 착용했던 작업복을 시작으로, 1920~30년대에는 일부 여성들에겐 일상복으로 받아들여지긴 했으나, 40년대 전쟁에 참가한 남성들을 대체하여 노동 산업에 참여한 여성들이 착용하기까지 여전히 노동자들의 작업복이었는데, 이러한 복식에는 강한 내구성을 지닌 실용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데님 패션은 50년대에는 10대들의 패션이 되었으며, 70년대에 와서는 전 세계인들이 착용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대중화되었다. 또한 이 시기 등장한 히피와 펑크 같은 하위문화 집단들까지 착용하여 기성세대, 체제와는 구분 짓는 그들만의 스타일을 구축하였는데, 이러한 복식에는 실용성과 더불어 저항성도 나타났다. 특히 히피들의 복식에서는 장식성 또한 나타났는데, 이들은 물질주의에 대한 거부로 온갖 수공예적인 기법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80~90년대에 데님 패션은 캘빈 클라인을 시작으로 고급화, 패션화가 이루어지 시작하여, 미국과 유럽의 유명한 패션디자이너들은 그들의 컬렉션에 데님을 포함시켜 매 시즌 그들만의 방식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였는데, 이러한 복식에는 실용성, 저항성, 장식성, 여성성 등과 같은 미적 특성이 나타났다.

둘째, 최근 컬렉션에서 나타난 데님 패션을 분석한 결과, 실용성은 단순한 형태, 스트레이트 실루엣의 데님 팬츠 혹은 스커트 수트에 고전적이면서도 기능적인 디테일이 특징인 클래식 패션과 디테일 장식이나 워싱 가공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절제된 세련미를 추구하는 모던 패션에서 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저항성은 형태를 해체하거나 데님을 과격적으로 찢거나 장식하는 등 실험적인 요소가 강한 아방가르드 패션과 낡고 색이 바랜 듯한 데님을 사용한 데님 아이템에 다양한 장식 기법을 사용하여 독특하면서도 낡고 오래된 느낌을 주는 빈티지 패션에서

주로 나타났다. 장식성은 데님 아이템에 민속 의상에서 영감을 받은 형태, 색상, 소재, 무늬, 디테일 장식이 특징인 에스닉 패션과 주로 데님을 사용한 아이템에 파스텔 계열의 색상, 프릴·리플·셔링 등의 디테일과 레이스·리본·꽃 등으로 장식한 로맨틱 패션에서 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성성은 데님 아이템을 밀착시키거나 길이를 짧게 하여 신체를 노출하는 등 도발적이고 관능적인 여성성을 표출하는 섹시 패션과 자연스러운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의 데님 패션으로 가는 허리와 다리 등을 부각시켜 우아하고 성숙한 여성성을 강조하는 엘레강스 패션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의 컬렉션을 면밀히 살펴본 바, 19~20세기에 축적된 데님 패션의 미적 특성은 현대 데님 패션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형적 특징은 포스트모더니즘, 여성성, 소재 및 봉제 기술의 변화 같은 여러 사회·문화적 요인과 패션디자이너의 미적 감각으로 매 시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착할 수 있는 한, 데님 패션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과거와 현대의 데님 패션에 나타난 공통된 미적 특성에만 제한된 분석이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현대 데님 패션에서 새로이 나타난 미적 특성을 중심으로 과거 데님 패션과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현대 데님 패션의 미적 특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금기숙. (2002). *현대패션 100년*. 서울: 교문사.
- 김경애, 이미식, 김정희. (2003). 셀룰라아제 처리된 데님직물의 태에 관한 연구(제3보): 텐셀직물의 주관적인 태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27(1), 40-47.
- 김미영, 이충연. (2000). 1990년대 Jean 광고의 변화: 광고유형과 jean의 미의식을 중심으로 분석

- 문화연구, 8(6), 791-805.
- 김민아. (2002). *데님(Denim) 패션 디자인 연구 : 신규 브랜드 상품 기획·개발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01). *진즈패션(Jeans Fashion)의 상징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란, 김병미. (2006). 2005년 S/S trend에 나타난 jeans의 패션경향과 패션상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2), 17-26.
- 김찬주, 노미경. (2007). 세계 대도시 남성들의 데님패션 비교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1(7), 997-1007.
- 김해순. (2002). *데님을 이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 스티치 장식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길순. (2008). *재미있는 패션의 세계*. 대전: 충남대학교출판부.
- 박길순 외. (2009). *패션 이미지 스타일링*. 대전: 궁미디어.
- 박성실. (1994). *1960년대 미국의 진즈 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영. (2006). *중국 20대 전반 여성의 하반신 체형과 진팬츠 패턴 개발 연구 : 북경. 상해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정, 신은주, 정혜영. (2004). 대학생의 의류쇼핑성향과 청바지 구매 시 점포선택. *한국의류학회지*, 28(5), 547-558.
- 변지현. (2010). *20대 플러스사이즈 여성을 위한 청바지 패턴 개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원. (2004). *데님 소재 변형 모티브를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미경. (2007). *청바지의 위싱가공 수축률을 적용한 패턴개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어미경, 김경아, 서미아. (2009). 위싱 가공 종류에 따른 청바지의 패턴 연구. *복식문화연구*, 17(4), 535-547.
- 유명진. (2007). *20-30대 여성의 진 웨어 착용행동, 구매행동 및 스타일링 선호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수. (2008). *아프리카 민속적 이미지를 표현한 데님 패션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외. (2006). *복식의 아이템*. 서울: 경춘사.
- 이미식, 홍문경, 권계화, 전정애. (2001). 청바지의 소재별 쾌적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2), 237-248.
- 이민경, 한명숙. (2002). 현대 데님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의 표현양식. *복식문화연구*, 10(4), 461-472.
- 이소령. (2006). *현대 데님의상에 표현된 해체주의*.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홍, 홍순화. (2000). Jean의 변천에 관한 연구. *생활문화연구*, 14(-), 73-99.
- 이은영, 유순례, 백천의. (1999). *패션*. 서울: 교학연구사.
- 이정숙, 성수광. (2004). 성별에 따른 청바지 착용자의 의복행동 차이.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3), 336-340.
- 이정원. (2007). *데님 웨어에 나타난 네오-미니멀리즘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윤. (2004). *현대 Jean 패션의 조형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효진. (2004). 데님의상의 현대문화사적 분석. *복식*, 54(8), 75-86.
- 임지완, 박민여. (2007). 국내 패션 트렌드에 반영된 빈티지(vintage)에 관한 연구 : 2001년 F/W~2006년 S/S까지. *복식문화연구*, 15(3), 405-419.
- 정삼호. (2008). *현대패션모드*. 과주: 교문사.
- \_\_\_\_\_. (2011). 시니어 세대를 위한 프리미엄 데님 디자인 개발: 하이브리드 안 커버링 복합사직물은 활용하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3(1), 47-57.
- 조아라, 박명자, 이연희. (2011). 현대 여성 데님패션의 코디네이션에 나타난 퓨전현상.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3(2), 133-146.

- 최윤정. (2007. 04. 21). [청바지 이야기] 드레스서  
가구까지 진의 변신. *파이넬설뉴스* 자료검색일  
2013. 10. 26, 자료출처 <http://www.fnnews.com>
- 최진경. (2003). *현대 패션에 나타난 진즈 웨어 (Jeans Wear)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연구*. 이  
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패션큰사전편찬위원회. (편). (1999). *패션큰사전*.  
서울: 교문사.
- 편집부. (편). (2001). *패션전문자료사전*. 서울: 한  
국사전연구소.
- Bond, D. (2000). *20세기 패션* (정현숙 역). 서울:  
경춘사. (원저 1981 출판)
- Craik, J. (2001). *패션의 얼굴*(정인희 외 역). 서울:  
푸른솔. (원저 1994 출판)
- Diamond, J., & Diamond, E. (2002). *The world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Inc.
- Lehnert, G. (2000). *A history of fashion in the  
20th century*. London: Könemann.
- Marsh, G., & Trynka, P. (2005). *Denim from  
Cowboys to Catwalks*. London: Aurum.
- TBWA KOREA. (2008). *청바지 세상을 점령하다*.  
파주: 알마.
- Tucker, A., & Kingswell, T. (2003). *패션의 유희*  
(김은옥 역). 서울: 예담. (원저 2000 출판)